

Interview

〈열린 지성〉 초대석

이번 '초대석'에서는
김명언 대학생활문화원장(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을
만나 학생생활상담과 기초교육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김명언 대학생활문화원장을 만나다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대학생활문화원의 간략한 소개와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발전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A 대학생활문화원은 1960년 학생지도연구소로 시작했습니다. 1975년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학생생활연구소로 바뀌었고, 2001년도에 현재의 대학생활문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생활문화원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상담 및 연구조사 업무 이외에 새로운 서비스 업무를 추가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획된 영화 상영 등의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리더십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봉사 리더 육성과 활동지원 등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의 발전방향을 대학생활문화원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행적이고 예방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오는 내담자만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로의 전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보다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게 도와주는 서비스활동 강화입니다. 셋째,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자료의 수집 및 활용입니다.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이렇듯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서 못하게 되면 줄이거나 없애도 되지만, 여러 이유로 대학생활에 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추세는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의 심각도 수준의 변이입니다. 대학생활문화원에 찾아온 학생들의 문제 심각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과거에는 '상'은 매우 적었고, '중', '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심각도 '상'에 속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상담인력을 보충하고 전문성을 증진하는 일이 대학생활 문화원의 당면 문제입니다. 특히 증세가 심각한 학생들의 상담을 맡을 수 있는 교수급 전문 인력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수 외국대학은 10여명을, 고려대, 서강대 등의 국내대학에서도 전일제 상담전문 교수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 박사과정에 있는 상담원 5명이 있고, 이중 2명은 상담 이외의 행정적인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담전담 전문위원을 한 분 고용하게 되어 상황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으로 검증된 외부 상담 전문가를 외래 또는 겸임교수로 초청해서 상담원들을 교육시키고, 어려운 케이스의 경우에는 직접 상담을 의뢰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Q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 학생들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A 가장 심각한 두 가지 문제만 얘기하면, 최근 들어 자살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만 해도 상담 중인 한 학생이 자살 시도 가능성을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작년에 비공식적으로 파악된 것만 10건이었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서울대생은 한국사회에서 선택된 사람들인데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긴급히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살충동 경향성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파악해 상담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MMPI라는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빠른 기간 내에 신입생 전체의 성향 분석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에게 개인별 피드백을 주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게 하여 스스로 개선노력을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대학차원의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학사경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4년도 2학기에 두 번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769명이고 세 번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373명입니다. 학업부적응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이에 따른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일부 단과대에서는, 일정 횟수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대학생활문화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확인서를 받아오게끔 했습니다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Q 대학생활문화원에서는 서비스의 대상을 학생에서 교수 직원까지 늘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A 서비스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수와 교직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방학기간동안 제공하고 있고 기대 이상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부부관계, 자녀-부모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예상 밖으로 신청을 많이 하였고 보다 심층적인 후속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교수들에게 지도교수로서 필히 구비해야 할 상담기법과 스킬 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지도가 지도교수로서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공감해주고, 효과적으로 피드백해주고 코치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Q 혹시 서울대생만이 가지는 문제가 있는지요.

A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 인정하고 더불어 지내는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선두 그룹에 위치해왔고, 게다가 중고교가 평준화가 되면서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는데, 서울대에 오고 난 뒤 자신보다 잘 난 사람이 왜 이리 많은가에 대한 충격을 순기능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우수한 사람들일지라도 각자의 장점이 다르고 취약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보다 뛰어난 동료의 우수한 점에 대해 존중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대상들이 또 다른 부족한 점은,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향한 봉사의식의 미흡이라고 봅니다.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Interview

서울대인에게 우리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봉사 마인드는 학생 개인의 전인적 성장과 리더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다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유일한 공식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대학생 활문화원의 '이웃사랑 프로그램'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자는 연간 약 180여명 정도인데, 이는 서울대학교의 총 학생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수입니다. 하버드대의 경우 Phillips Brooks House Association (PBHA)이라는 미국 대학 최대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700여명의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13,000여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대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부족과, 담당 인력이나 예산 지원의 미흡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매년 실시하는 신입생 의식조사에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학생은 전체 신입생 중 평균 80%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웃사랑' 담당 인력은 조교 1인에 불과하며, 자원봉사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봉사 마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인력 및 재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기초교육원과 대학생활문화원에서 모두 리더십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리더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대학생활문화원에서의 리더십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실천 위주의 리더십계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조직의 장을 맡기 전이나 후나 변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 관리자이죠.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임식에서 흔히 얘기하는 “대과없이 소임을 다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리더가 아니라 관리자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의 장으로 온 사람으로 인해 그 조직이 뭔가 좋은 쪽으로 달라졌다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생들을 그같은 다름을 만들어내는 미래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계발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 에티켓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을 도전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는 체계적인 스킬교육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follower들을 수동적 인간이 아닌 자아실현가로 보고, 자신과 follower와의 관계를 이익을 교환하는 관계가 아닌 근본을 가르치고 토양을 만들어주는 사부(師父)관계로 봅니다. 그리고 follower들로부터 먼저 신뢰해주시기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아울러 리더의 시야는 10년 후의 미래를 향하고 있으며, 파라다임의 변화를 주시합니다. 서울대생들에게 이같은 리더의 자질을 체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생에 맞춤형화된 리더십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졸업식에서 나는 서울대를 다녔기에 '전공지식이 늘었다' 보다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게 되었다' 라는 자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장상, 동창회장상도 학점만 좋은 학생이

아닌 여러 모양의 모범이 되는 리더십을 발휘한 학생, 사회봉사를 많이 한 학생,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양과 기초교육이란 어떤 것입니까?

A 저는 대단히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교양이 있다 없다고 하는데, 가족이 급속히 핵가족화 되고 사는 터전이 아파트화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양이 없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인사 나누는 것이 극히 드문 사건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저는 교양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태까지 대접받고 살아온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교양교육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교육은 과목 면에서는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교육에서는 특히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미하는 바를 잘 파악하는 토론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토론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울대생들은 어려서 부터 총명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총명한 것이지만 커서는 남을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총명(聰明)이라는 단어의 총(聰)자를 잘 살펴보면 앞에 귀(耳)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똑한 서울대생들이기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공감하는 자세를 배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목진행이 완전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완전 학습이란 이해하고 (understand), 적용하고(apply), 가르치는 것(learn)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적용하고 가르쳐 봐야 무엇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떠한 유용함이 있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Q 교수님이 대학을 다녔을 때와 지금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들입니까?

A 저는 70년대 초중반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당시의 대학생들은 무거운 한국사회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학기 수업이 제대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수업은 학교보다는 학교 밖에서, 교수님보다는 선배나 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학점으로 공식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초와 교양과목을 선택해서 들은 셈이지요. 요즘과 달리 그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제공해주는 친절하고 풍부한 정보와 지식이 없었기에 혼자 사유하고 찾아다녀야 했지요. 그때에 비해 요즘 서울대생들은 독자적으로 끈질기게 사유하는 면에서 약해진 것 같아요. 수업시간 발표나, 기말 리포트에서 이런 경향을 확인하곤 해요. 너무 성급히 성과를 얻어내려 하는 모습도 강해 보이고, 그 때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대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은 취약해 보여요. 지구촌의 시민이며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반면에 경제적 여건이 좋아진 탓도 있겠지만 우리 때 보다 훨씬 더 밝아진 모습과 낙관적인 자세는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타임지나 비즈니스위크지 뿐만 아니라 문학잡지와 시집을 들고 다니며 서로 읽고 나누는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자주 보기를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학부제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다수의 1, 2학년생들이 자신들을 고교 4학년, 5학년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할 정도로 원하는 전공에 진입하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직성을 무시한 인기 학과로의 쏠림현상에는 학생과 학부형들의 책임도 있지만 교수들의 학과이기주의도 한 책임 있다고 봐요. 제가 속한 사회대에서는 모집 단위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2학년 올라갈 때 전공 선택을 강제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4년간 이수 과목을 근거로 졸업할 때 전공부여를 해주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학생이나 개별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율적 선택은 종신 책임을 지게 하기에, 만약 4년간의 자율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 나중에 스스로 보완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끝나쳐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마치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다고 하기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히 들었습니다.

● 글 : 이상화 / 사진 : 최정민